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다자개발은행 총재 등 주요인사 면담 결과

- 구윤철 부총리,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G20 차원 협력 제안
- 세계은행(W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 내년 중 한국에 'IDB AI-Hub' 개소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하 구 부총리)은 4.16(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26년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①경제성장 제약요인과 ②글로벌 불균형 등 총 2개 핵심 의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 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결과 】

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경제성장 제약요인에 대해 논의한 1세션에서 규제·행정 부담, 비효율적 조세제도, 투자 부족, 노동공급·이동성 둔화 등이 경제성장과 성장촉진적 개혁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데 공감하고, 최근 중동전쟁으로 세계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경제성장에 또다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 부총리는 AI 등 투자 확대와 규제혁신·노동공급 확충을 통한 성장기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금융 확대·전쟁추경 신속 편성 등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는 최근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소개하였다. 또한, 각국은 신속한 정책 대응과 적극적 국제공조를 통해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세계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한 G20 차원의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글로벌 불균형*을 논의한 2세션에서 구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과도하고 지속적인 불균형이 세계 경제의 또다른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험 요인을 적절하게 **예방·관리**하기 위해 G20 등 주요 국가간 적극적인 **공조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IMF·OECD 등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불균형 스터디그룹**(’26.1~6월, 한국-호주 공동의장 수입)을 **운영**하여 불균형의 정의·원인, 측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선진국과 신흥국 간 **중재·조정자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균형이 세계경제에 어떤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여부와 함께, 불균형을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편 방안** 등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세계 경제에서 특정 국가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타국의 경상수지 적자 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

【 ② 프랑스·호주·우즈베키스탄 재무장관 등 양자 면담 결과 】

구 부총리는 금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프랑스의 롤랑 레스퀴르(Roland Lescure) 경제재정부 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 잠시드 쿠츠키로프(Jamshid Kuchkarov) 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양자 면담을 가졌다.

프랑스 측은 면담 자리에서 5.18(목)~5.19(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 예정인 G7 재무장관회의에 구 부총리를 초청하였으며, 중동전쟁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대응, 글로벌 불균형 해소, 공급망 협력 등 한국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호주 및 우즈베키스탄과의 면담 자리에서는 에너지·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구 부총리는 호주와 우즈베키스탄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에 있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며, 한국은 첨단 제조업과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의 핵심 가공·활용국 역할을 하는 만큼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연내 韓-우즈베키스탄 경제부총리회의, 韓-호주 국장급 공급망 정책대화를 개최하여 **금일 면담 주제**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뉴욕에 이어 글로벌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칼라일 그룹(Carlyle Group)의 하비 슈와츠(Harvey Schwartz) 최고경영자와 면담을 통해 자본 시장 활성화 및 AI 대전환 정책방향 등 **우리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고, 한국은 매력적 투자처로서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에 참여하기를 당부하였다.

【 ③ 다자개발은행(MDBs) 총재 면담 결과 】

이어 구 부총리는 세계은행(World Bank) 아제이 방가(Ajay Banga) 총재, 아시아 인프라개발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쩌우 자이(Zou Jiayi) 총재,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일랑 고우드파잉(Ilan Goldfajn) 총재 등 국제금융기구 총재와 잇따라 개별면담을 가졌다.

먼저 구 부총리는 세계은행 아제이 방가 총재와의 면담에서, UN과 다자개발은행(MDB)들의 AI·디지털 사무소들을 한국에 집적화하는 “글로벌 AI 허브” 조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AI 기술·기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계획을 소개하였다. 세계은행은 이미 작년말 AI·디지털 지식 허브인 ‘WB 글로벌 디지털 지식센터’를 한국에 개소한 바 있다. 또한, 구 부총리와 방가 총재는 블록체인 관련 협력 사업 발굴, 한국에 AI 캠퍼스를 만들어 개도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AI 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후, 구 부총리는 쩌우 자이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총재와의 면담에서 올해 1월 임기를 시작한 총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AIIB 간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한국 인력 진출 등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IDB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한-IDB AI-Hub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2027년 중 한국 내 IDB AI 협력사무소 개소를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지난해 한국-미주개발은행 간 투자의향서(LOI) 체결에 이어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측 협력을 실행 단계로 진전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이번 AI-Hub 양해각서를 매개로 한국의 우수한 AI 기술·기업이 미주개발은행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중남미 지역에 한국의 우수사례 확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부총리는 4.17(금)에는 국제통화위원회(IMFC) 회의 및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특별세션에 참여한 후, 미국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예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	책임자	과 장	배경화 (044-215-4810)
		담당자	사무관	송기선 (steamship@korea.kr)
		담당자	사무관	원종혁 (gur2794@korea.kr)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박정현 (044-215-8710)
		담당자	서기관	홍가영 (hongga0@korea.kr)
		담당자	사무관	김재이 (jerryca472@korea.kr)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책임자	과 장	곽소희 (044-215-8720)
		담당자	사무관	권기환 (kkhpark@korea.kr)
	AIIB팀	담당자	차 장	한상훈 (aiib@korea.kr)
	대외경제국 경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구교은 (044-215-7740)
		담당자	사무관	황인환 (inhwan89@korea.kr)
		담당자	사무관	허창혁 (changyukhe@korea.kr)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